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MK (04 Dec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vip.mk.co.kr/newSt/news/planning_news_view.php?p_page=&s

Code=111&pCode=111&t_uid=20&c_uid=1228788

생산성 싱가포르 > 일본 > 한국…임금은 한국 > 싱가포르 > 일본

2014-12-04 17:32:59 입력

2012년 기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개 시중은행 1인당 생산성은 평균 8310만원인 데 비해 평균 연봉은 7818만원이었다. 순익 94.1%가 직원 급여로 지출된 것이다. 신규 채용이 줄면서 40대 이상 행원 비율이 46.3%에 이른다는 점은 은행에 고액 연봉자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또한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어 임금 체계를 비탄력적으로 운영해온 탓도 있다.

이처럼 ‘호봉제’를 방어막으로 삼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인 노조는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를 더 크게 만든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후진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은 낮으면서 임금 수준은 가장 높아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시간당 생산성은 싱가포르 42 달러, 홍콩 40.4 달러, 일본 36.6 달러에 이어 한국은 26.5 달러로 꼴찌였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우리나라가 2903 달러로 싱가포르(2616 달러) 일본(2522 달러) 홍콩(1545 달러) 등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행한 ‘노동시장 이원화 관련 보고서’ 역시 한국 노동생산성은 2만 2484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만 9051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 경쟁력은 하락 추세다. 우리나라 시간당 임금은 223.5로 대만(143.3) 일본(134.4) 미국(146.3)보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기획취재팀 = 김기철 팀장 / 신현규 기자 / 서대현 기자 / 장원주 기자 /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